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MONSTER WHO WASN'T

가제 : 괴물이라 불린 아이

저자 : T. C. Shelley

출판사: Bloomsbury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9년 8월 8일

분량 : 320쪽

장르 : 9세 이상 모험소설



*** 괴물과 사람의 특성을 반반씩 가진 채로 태어난 아이, 사랑 받고 싶은 꼬마 괴물 생과 특별한 능력을 탐내는 괴물들이 펼치는 모험을 그린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지상에 살던 사람이 생을 다하고 숨이 멎기 전, 마지막으로 내뿜는 깊고 긴 숨결 속에는 그가 한평생 살면서 쌓인 후회가 모두 담겨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숨은 몇 날 며칠에 걸쳐 지구 저 아래 깊숙한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괴물들의 세계로 흘러 들어간다. 그곳 지하세계의 왕이 이 침울한 숨에 자신의 숨을 끼얹으면 자그마한 돌멩이가 만들어지고 며칠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화의 날, 작은 덩어리에서 새로운 괴물이 탄생한다. 알을 깨듯 그 덩어리를 깨고 튀어나온 새로운 존재는 트롤이나 용과 같은 거대한 괴물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뾰족한 픽시, 보가트 같은 그 하위 단계의 괴물이 될 수도 있고, 바다에서 뱃사람들을 홀리는 사이렌이나 마녀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이 남긴 후회가 깊고 절망적일수록 더 사악하고 잔인한 괴물이 탄생한다는 사실, 혹은 괴물이 발 밑 저 깊은 곳에서 호시탐탐 지상을 넘보며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간은 알지 못한다. 호주 출신의 작가는 데뷔작으로 완성한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서 어쩌다 후회의 마지막 숨결과 괴물들의 왕이 내뿜은 숨이 '비정상적인' 비율로 합쳐져서 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존재로 태어난 아이의 당혹스러운 현실을 그린다. 너무 사람과 흡사해서 태어나자마자 괴물들로부터 '억겁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아이는 땅 위에서 사람인척 살기에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특별한 괴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결국 어디에도 끼지 못한 채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줄 이들을 소망한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이 귀여운 꼬마 괴물은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사람, 혹은 괴물을 찾을 수 있을까?

자신과 꼭 빼 닮은 아들, 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갓 태어난 손녀를 두 팔에 안은 할아버지는 아직 이가 하나도 나지 않은 잇몸을 환히 드러내며 방긋 웃는 아기를 보며 미소 짓는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태어날 시점을 정하지 못하듯 세상을 떠나가는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이 할아버지는 가슴 벅찬 그 행복한 순간이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되고 만다. 어린 손녀를 향

해 흐뭇한 미소를 짓는 할아버지는 긴 세월이 담긴 숨을 마지막으로 내뿜고, 조용히 숨을 거둔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남긴 최후의 숨결은 후회나 절망이라곤 한 조각도 없는 아기의 숨과 만나고, 그대로 지하 세계로 전해진다.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때와 같이 그 위에 자신의 숨을 내뿜은 지하 세계의 왕, 괴물 중에서도 최고의 괴물이라 불리는 거대한 선더거트는 이상하게 빛이 반짝이는 덩어리가 생겼다는 노파들의 걱정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 온갖 괴물들이 둥그렇게 모여 새로 태어나는 괴물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반짝이는 덩어리에서는 유독 가느다란 팔과 다리가 특 튀어나와 지켜보던 괴물들을 놀라게 한다. 아기 괴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비슷한 종류의 괴물들이 자기 자식처럼 데려가 키우는데, 빛을 발하던 덩어리를 깨고 나온 새 존재는 누구도 데려가고 싶지 않은 물골을 하고 있었다. 바로 괴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다! 모두 기겁하며 얼른 내쫓자고, 여기에 두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칠 때 이 아이를 반긴 유일한 괴물은 바로 선더거트였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덩치에 고향치는 선더거트를 보고 겁을 먹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달아나기 시작하고, 날쌔 두 다리를 눈여겨본 가고일들에게 이끌려 지상으로 올라간다. 교회 지붕에서 평소에는 석상처럼 가만히 있는 이 가고일들에게 초콜릿을 훔쳐다 주는 부하로 아이의 혼란스러운 지상 생활이 시작된다.

태어나자마자 '배고파'라고 외친 아이는 어떤 괴물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눈만 마주쳐도 싫은 기색을 띄던 기억이 큰 상처로 남아 있다. '왜 나는 트롤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고, 거인도 아닐까?' 자신을 부러먹기만 하는 가고일들 틈에서 시키는 대로 좀도둑 생활을 하던 아이는 어느 날,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사람들과 마주친다. 같은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생김새와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까지 한 가족이라 해도 될 만큼 너무 흡사한 사람들이 여럿 나타난 것이다. 이름이 없는 아이에게 이 가족은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샘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 겁도 없고 용맹한 샘은 드디어 마음 편히 기대고 지낼 울타리가 생겼다면 기뻐하지만, 더 가혹한 운명이 샘을 기다린다. 인간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지하세계로 쫓겨나야 했던 괴물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는 선더거트는 이 특별한 꼬마 괴물이 다시 지상을 괴물들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줄 유일한 존재라 확신한다. 그에게 샘은 그저 사라진 꼬마 괴물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서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데 활용해야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 것이다. 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더거트가 서서히 다가오는 가운데, 과연 샘은 그토록 원하던 '가족'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2020년과 2021년에 2권, 3권이 차례로 나올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괴물이 등장하는 세계 각국의 재미 있는 설화와 현대적인 마법 이야기가 절묘하게 결합되고, 불편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랑스러운 샘을 통해 가족과 소속감이라는 주제를 의미 있게 다룬다. 상상력을 자극하며 세상에 정말 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T.C. 셸리(T.C. Shelley)는 대학에서 문예창작과 문학을 공부하고 20년 이상 영어 교사로 일했다. 현재 서호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THE BOY AT THE BACK OF THE CLASS

가제 : 특별한 전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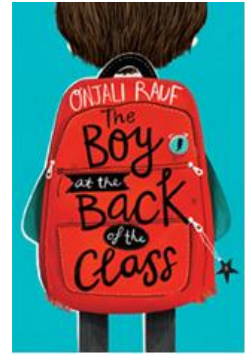
저자 : Onjali Rauf

출판사: Orio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8년 7월 1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문학



* 2019 블루피터 도서상(The Blue Peter Book Awards) 소설 부문 결승 진출작 / CLIP 카네기 메달 아동 도서상 후보

*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고 때로는 낄낄 웃음이 터지게 만드는 이야기. 인간의 본성을 다시 믿게 하는 이야기다.” - 「선데이 포스트」

* “사랑스럽고 따뜻한 데뷔소설. 용기와 장난기 가득한 우정을 아름답게 그린 이야기” - 「가디언」

전쟁으로 집과 재산을 모두 잃은 것으로 모자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려 어쩔 수없이 고향 땅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 이들을 마땅히 받아주어야 한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이 난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어린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상적인 소설이 발표됐다. 어느 날 교장선생님과 함께 나타나 교실 맨 뒤에 덩그러니 남아 있던 빈자리를 채운 소년이 며칠이 지나도 도통 말이 없고 웃지도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공이 어딘가 서글픈 눈을 한 이 전학생과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난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눈길과 반응, ‘당연한 일’에 대한 너무나 다른 기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않고 옳은 길을 찾아 나선 용감한 어린 친구들의 노력을 그린다. 소설이 거의 끝날 때까지 소년인지 소녀인지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소설 속 주인공은 같이 놀고 힘들 때 도와줄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아흐멧이라는 전학생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 애쓴다. 이 예쁜 마음씨가 아흐멧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족을 되찾아주려는 계획으로 야심 찬 목표로 확장되면서 이야기는 결코 무겁지 않은 어조로 유럽에서 현재 시급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도록 이끈다.

주인공은 이미 전학생을 베스트프렌드로 만든 전력이 있는 아이다. 1년 전 미국에서 왔다는 통이 교실 한 쪽에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도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을 못하고 그 낮은 아이를 힐끔힐끔 계속 쳐다보다가 먼저 말을 걸고, 같이 놀던 조시와 마이클과도 인사를 시킨 후 자연스럽게 네 사람은 늘 푹푹 뭉쳐 다니는 친구들이 되었다. 딱히 영웅이 되려는 마음은 없어도 네 친구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못 견디는 공통점이 있었다. 얼마 전 학교 전체에서 짓궂기로 소문난 아이들이 귀여운 햄스터를 번기에 빠뜨려 물을 내려볼 계획을 세운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깜짝 놀란 주인공은 조시와 함께 ‘햄스터 구하기 작전’에 돌입했다. 철저한 계획대로 그 불쌍한 동

물이 변기 앞으로 끌려가기 전, 그 못된 아이들의 가방을 뒤져 몰래 훔쳐서 책가방에 집어넣고 집에 가져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주인공과 조시는 어쨌건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방과 후에 남아 벌을 받아야 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아버지가 여섯 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엄마는 매월 우편함에 그득 도착하는 각종 세금 고지서를 해결하느라 평일에도, 주말에도 늘 바쁘게 일을 하는 형편이라 주인공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없이 소중한 것이다. 서로 부족한 과목을 도와주기도 하고, 못된 아이들이 괴롭히면 같이 가서 혼내주기도 하면서 우정을 키워가던 네 아이들이 교실 맨 뒤에, 그것도 하필 늘 짜증스럽고 남자아이라면 싸잡아 질색하는 클라리사 옆자리에 앉은 전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인 건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이야기를 지어내서 제멋대로 말하고 다니는 제니 때문에 이 말없는 아이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주인공은 절대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마음 먹는다. 대체 ‘난민’이 뭐길래 다들 저렇게 수군대는 걸까?

수업이 끝나고 매일 아흐멧을 데리러 오는 사람은 아주 크고 예쁜 갈색 눈에 밝은 금발을 하고 빨간 스카프 맨 아줌마였는데, 누가 봐도 아흐멧의 엄마는 아닌 것 같았다. 체육시간에도 스탠드에 앉아 있기만 하고 과학 시간에는 다들 조별로 앉을 때 선생님이 아흐멧을 혼자 따로 앉히는 것이 영 신경 쓰인 주인공은 어느 날, 하룻길에 빨간 스카프를 맨 아줌마가 있는 곳으로 쏠살같이 달려가서 아흐멧에게 대뜸 사탕을 내민다. 그래도 말 한 마디 없이 아줌마 팔 뒤로 얼굴을 파묻어버린 아흐멧 뒤로, 다른 학부형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재가 칸 선생님 반에 새로 온 전학생인데 난민이래, 우리 일자리 빼앗는 사람들이잖아, 애가 무슨 잘못이겠어, 그래도 왜 하필 우리 학교야, 같은 속삭임은 며칠 전 제니가 아흐멧은 너무 위험해서 우리랑 체육도 같이 못하고 조별 활동에도 선생님이 포함시키지 않는 거라고 떠벌일 때처럼 영 듣기가 거북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난민이 뭔지 물어본 주인공은 눈 앞에서 폭탄과 총이 터지는 위험한 상황에 다 버리고 시리아에서 영국까지 그 먼 길을 와야만 했던 아흐멧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졌다. 기분 좋게 여행을 가도 몇 시간씩 이동하면 지치고 피곤한데, 아흐멧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얼마 후, 주인공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마다 아흐멧이 늘 혼자 어딘가로 가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이유도 알게 된다. 험난한 피난 길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영어는 할 줄도 모르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아흐멧을 학교 측이 배려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주인공은 아흐멧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플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톰, 조시, 마이클과 힘을 모아 최대한 학교에 적응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급기야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아흐멧의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여왕님께 편지를 쓰는 것이다! 과연 아흐멧은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친절함, 인내, 공감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린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온잘리 라우프(Onjali Rauf)는 인권단체 Making Herstory의 창립자 겸 CEO로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학대,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참여해 왔다. 웨일스 대학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여성학을 전공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